

일심 깨달아 알 때가 곧 '대방광불화엄경'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운산 골짜기로 들어가는 시골 길에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뚜렷하다. 10여 분을 승용차로 달렸을까. 4년만에 참배하는 고운사 초입의 도로 변에 못 보던 비석과 연못, 정자와 더불어 도로 반대편에는 비로자나부처님과 인공술이 보인다.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본지에 게재됐던 뉴스를 되짚어보니 비석은 의상 스님의 법계(法性)의 원인과 해석을 큰 돌에 새긴 '법계도비'였고, 숲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를 도판 그대로 명상의 숲으로 조성한 '법계도림'이었다.

세계 최초로 조성됐다는 법계도림에 호기심이 끌려 호젓하게 사진기를 든 채 미로처럼 된 법계도 숲을 따라 걸었다. 다소 서늘러 걸다보니 약 20분이 걸린다는 안내판과 달리 10여분만에 흥단풍 숲길을 지나서 비로자나부처님과 마주하게 됐다.

신라시대에 고운사를 창건(681년)한 의상(義湘, 625~702) 대사가 광대무변한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 계승으로 압축한 도인(圖印)을 가리키는 화엄일승법계도. 법계도는 7언 30구로 구성되는데, 일반 문장과 달리 연속된 글자들을 4개의 '회(回)'자 모양을 이루는 모양으로 배열했다. 그것은 계승의 내용과 도형의 모습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계승이 모두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래(如來)의 일음(一音)을 나타내고, 이 선이 굴곡을 이루는 것은 중생의 욕망이 끊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 법계도의 모양이 시작과 끝이 없고 '회'자의 도형으로 표시된 것은, 여래의 선교방편에는 특정한 방법이 없고 진리의 수레바퀴는 항상 돌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법의 성품 원만하고 결핍 없어 두 모습 없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면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모든 법 흔들림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여)'로 끝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의미심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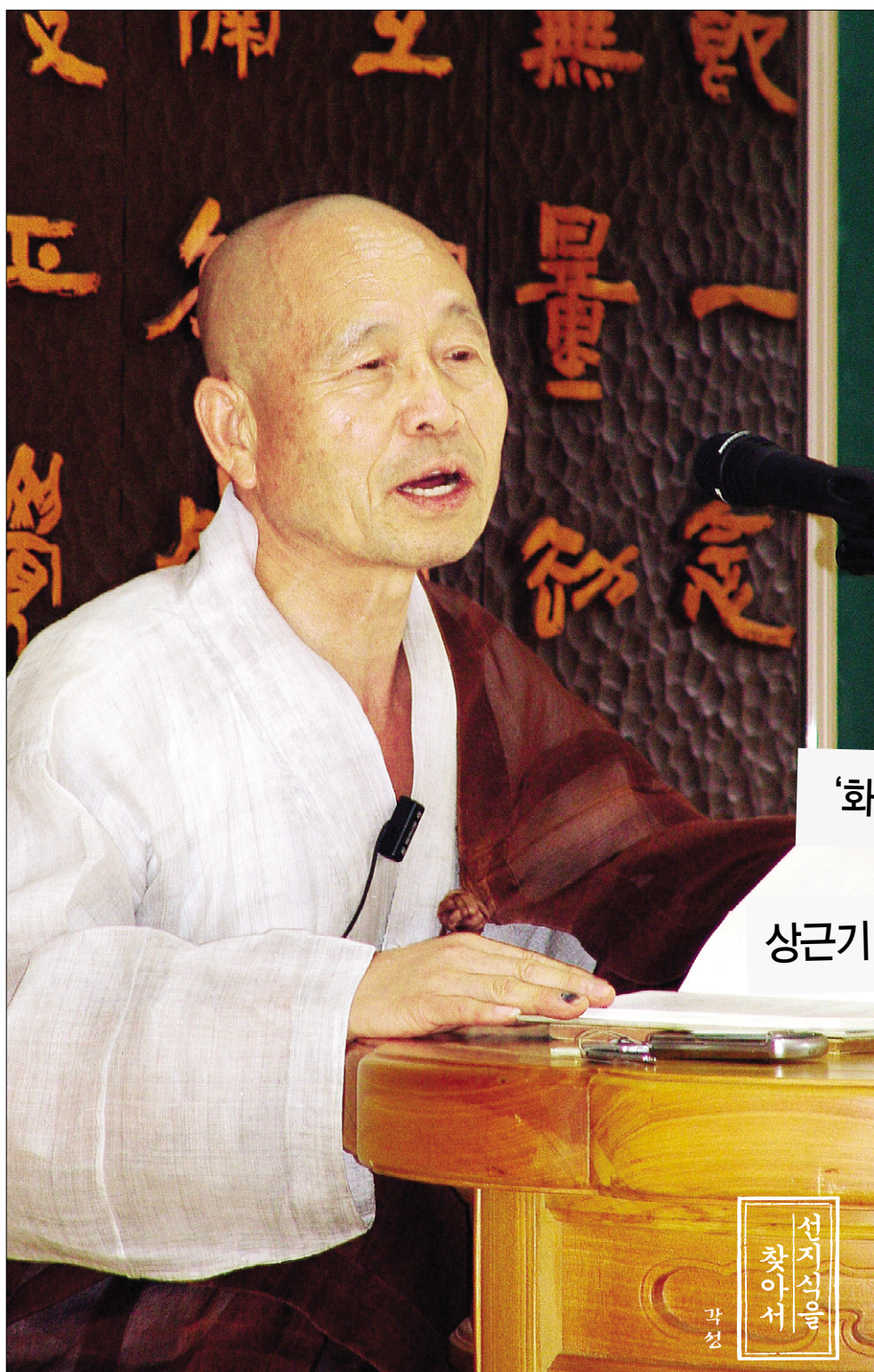
법계도의 도장(卍)이 상징하는 '해인삼매(海印三昧)'란 과연 어떠한 경지일까, 지금 이 자리를 떠나 그런 경지가 따로 있을까 하는 망상을 지어보며 비로자나불과 돌이 아닌 자성불에 삼배하니, 새삼 고향 땅에 모처럼 찾아온 연유가 떠오른다.

'이곳은 과연 부석사에 버금가는 화엄도량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시대의 화엄종주인 화엄학회 회주 각성 스님이 3박4일(9월 7~10일) 일정으로 '화엄요해'를 설하는 법석이 펼쳐지는 날이 아닌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법회 준비에 바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께 합장 인사를 드리고 점심공양 후, 객실에서 각성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질문을 드렸다.

"스님께서 반 백년 동안 출가수행의 길을 걸으셨는데, 한 마디로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란 무지에서 벗어나 깨달은 길입니다. 얽히고 설킨 마음의 고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생사해탈하여 성불하는 길입니다. 공자, 노자, 장자, 인도 명상



(空性)을 체험한 계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행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18세에 사미계 수지 후 비슬산 도성암에서 공부할 때 은사 도원 스님에게 '옵마니반메홀' 6자대명왕 진언을 항상 수지독송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니다. 당시 선원에는 '옵마니반메홀 진언을 400만 독 하면 견성한다'는 용성 스님의 안내장이 나올 때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웅맹정진 해서 7만 독 정도 했을 때,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미리 아는 예지능력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세 살 때까지의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진을 계속해 머릿속에는 옵마니반메홀이 염주처럼 쉬지 않고 돌고 돌았습니다. 6자진언 정진을 한 지 110여 일 지났을 때, 문득 6근이 본래 없다는 게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옵마니반메홀 진언까지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순간 주관과 객관이 모두 텅 빈 오온개공(五蘊皆空; 오온이 모두 공함)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스님은 4·19의거 직후 약관 23세의 나이로 <금강경 3가해>를 비롯한 불교 강의를 시작하는 한편, 강원에서 경 공부를 병행했다. 밤 1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간경수행하는 시간은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 옵마니반메홀 수행을 통해 경안이 열려 배우지 않은 경전도 저절로 이해했다. <능엄경>에 "내적으로 몸과 마음을 벗어나고, 외적으로 세계도 벗어난 것이 마치 새가 새장을

집을 증의해서 출판하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한 것은 물론, 동국역경원 증의위원을 맡아 한글대장경이 완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학과는 배치되는 질문 같지만, 계속되는 수행법 관련 질문.

"스님께서 해오신 오랜 경전 공부와 실참의 경험으로 볼 때, 요즘 불자들에게는 어떤 수행법을 권하시겠습니까?"

"말세 중생에게 마음을 비우고 염불수행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염불수행법을 하나 하나 일러주신다.

"상근기는 '실상염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주 만유가 본래 없고 텅 비어 맑은 빈 자리, 즉 무명무상 절일체(無名無相絕一切: 이름, 모양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끊어진 자리)의 자리임을 관하는 것입니다. 또 중근기는 '관상염불'이 좋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32상80종호와 극락세계를 관하는 염불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칭명염불'을 권합니다."

7일 오후 2시, '화엄요해' 특강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스님의 평생 좌우명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좌우명이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해온 발원이 있습니다. '미묘한 음성과 큰 번재(辯才)를 성취하고 모든 신통을 갖추며, 모든 바라밀을 닦아 성불하여져

'화엄요해' 법석 열어... 육자진언 7만독 후 진언마저 내려놔

상근기 '실상염불' · 중근기 '관상염불' · 일반 '칭명염불' 해야

벗어난 것과 같다'고 한 것이나, <대승기신론>에서 "모든 육진 경계가 마음에 의해 생기고, 마음을 떠나면 없다"고 한 공(空)의 도리를 체득해 문리(文理)가 저절로 터져나온 것이다. 한학자 집안에서 여덟 살부터 외운 4서3경 덕택에 스님은 사미, 사 집을 월반해 곧바로 <능엄경>을 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다시, 스님께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

"간경수행을 하면서, 그 전날 옵마니반메홀 정진을 통해 체험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기반을 잘 닦으면 매(昧)하지 않아요. 마치 1층 담을 튼튼히 쌓으면 5층, 7층까지 담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수행체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경전 공부하는 데 큰 계기가 됐지요."

각성 스님은 당대의 대강백이었던 관음, 탄허, 운허, 고봉 스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큰스님들의 문

이다' 하는 것입니다."

객실에서 물러나와 지난해 10월 완공한 선체험관(백련암)에 미리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리던 '화엄요해' 특강 입제식이 진행된다. 해인사 백련암 시절부터 오랜 인연에 고마움을 전하는 고운사 회주 혜승 스님의 축사와 화엄법회를 펼친 각성 스님에게 감사사를 전하는 주지 호성 스님의 인사말에 지극한 신심이 느껴진다. 이어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법단에 앉은 각성 스님은 고운사와 화엄종의 인연을 상기시키며 2시간의 화엄사상 강의를 펼친다.

"일체 성현중에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요,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위대합니다. 집에 문이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하게 하듯이 법에도 문이 있어 범승(凡聖)들의 출입을 통하게 하니 그것이 곧 법문(法門)입니다. 성인은 중생을 교화하려고 진여문(眞如門)에서 나와 생멸문(生滅門)에 드나들며, 중생은 부처를 이루려고 생멸문에서 진여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각성 스님은 범부와 성인의 차이가 있다고

등 많은 외도가 있지만 불교는 최고 최상의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평생 팔만 장경을 열람하셨는데, 불자들에게는 어떤 경을 우선적으로 권하시겠습니까?"

"화엄, 법화, 열반이 모두 소중한 경이지만 수행자

들에게는 <능엄경>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능엄경>을 보면 팔만 장경의 핵심요지와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법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기니까요."

"스님께서 팔만 장경을 꿰뚫어보는 경안(經眼)을 갖기까지는 이론만이 아닌 실제 수행을 통해 공성

해성불원(海城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는만큼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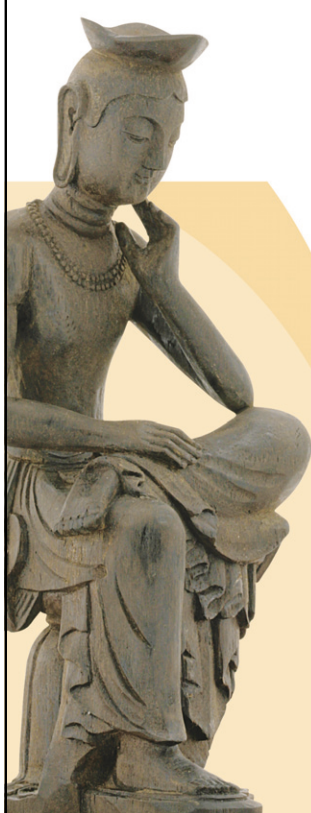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자빌딩 1505호)

감사의안내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각 사암 스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해성불원자비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 사암스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와 놓여준 총각 들을 대과 없이 짝을 이루어 살때, 근원을 이루어 주었고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여러 국가 여성들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아가씨와 폭 넓게 발전하게 됨은 오로지 스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하여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나중각들의 삶의 보람과 굳건한 한국 인구 발전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대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 구분 | 화재 | 화재 | 상해 |
|-------|--|---|-----------------------------|
| 기본 담보 | 화재손해 | 시설소유 배상책임 | 24시간 상해 |
| 선택 담보 |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 물질손해확정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상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